

中國語 名詞의 形容詞的 用法

박기현* · 최봉량**

<目次>

I. 緒論	III. 名詞와 관련된 形容詞意味
II. 言語類型과 中國語의 特徵	1. 中國語 名詞의 形容詞的 用法
1. 言語類型論	2. 韓國語와 英語 名詞의 形容詞化
2. 中國語의 特徵	IV. 結論

I. 緒論

지구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이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가 가능하다. 중국어는 형태적으로 보면 고립어, 어순으로 보면 SVO형, 친족관계로 보면 漢藏語族, 주제의 중요성으로 보면 주제를 중시하는 언어에 속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분류법 중에서 중국어의 문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고립어라는 형태적인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 특징은 중국어 문법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본문에서는 중국어의 고립어라는 형태적인 특징이 초래하는 한 가지 통사현상인 중국어 명사가 아무런 형태변화 없이 통사 형용사가 출현하는 위치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명사에서 이 명사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가지고 형태적인 성격이 중국어와 다른 언어와 비교해 봄으로써 중국어의 특징을 새롭게 인식해 보고자 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 경일대학교 관광통역학부

II. 言語類型과 中國語의 特徵

1. 言語類型論

언어는 여러 기준, 여러 각도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언어 유형 연구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형연구는 어순에 의한 유형과 형태에 의한 유형 분류가 있다.(Comrie, 1981 중역본: 第二編, 第四編)

어순에 의한 유형 분류는 대개 문장의 주요 성분(주어Subject, 목적어 Object, 동사Verb)과 명사구에서 수식성분과 피수식성분간의 상대적인 순서에 의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요 문장성분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한데 논리적으로는 SOV, SVO, VSO, VOS, OVS, OSV의 여섯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섯 가지 유형은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세 가지 특히 SOV, SVO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어나 터키어 등이 SOV형에 속하고 영어나 중국어가 SVO형에 속한다.¹⁾

형태에 의한 언어 유형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립어, 교착어, 융합어²⁾의 세 가지로 나누며 합성어까지 포함하여 네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나 베트남어와 같은 고립어는 시제에 따른 단어 내부적인 변화나 격과 같은 형태변화가 없는 언어로 전형적인 경우는 단어와 형태소가 일대일 대응을 이룬다.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의 경우 한 단어가 하나 이상의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어 내부의 형태소 간의 경계가 명확하며

1) Li & Thompsom(1976)은 중국어가 SVO형에서 SOV언어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SVO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견해이다.

2) Comrie(1981, 중역본 p52)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屈折語'라는 명칭 대신 '融合語'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립어와 비교해 보면 교착어나 융합어는 모두 굴절변화가 있으며 따라서 '굴절'이라는 이름으로 둘 중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형태소가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어 소리를 통해 형태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영어와 같은 융합어의 경우 형태소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한 단어 내부의 서로 다른 범주가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언어는 우리에게 알려진 언어만 2500~3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발생학(genealogy)적 분류법에 따라 그 계통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언어 계통을 밝힌다는 것은 그것과 다른 언어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발생학적 분류법에 따라 통사적 특징이나 음운 등을 근거로 그 친족관계를 보면 印歐語族(Indo-European Family), 알타이어족(Altaic Family), 漢藏語族(Sino-Tibetan Family) 등이 있다. 인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印歐語族에 속하며, 한국, 일본, 터키 등은 알타이어족에 속하며, 중국, 인도 북부의 캐시미르지방, 네팔, 버마, 태국 등은 漢藏語族에 속한다.³⁾

어순, 형태, 친족관계에 의한 언어의 유형 외에도 Li & Thompsom (1976)은 주어와 서술어(subject-predicate), 화제와 설명(topic-comment)이 두 가지 문법관계를 근거로 언어를 주어를 중시(subject prominent)하는 언어, 화제를 중시(topic prominent)하는 언어, 주어와 화제를 모두 중시하는 언어, 주어와 화제 모두 중시하지 않는 언어의 네 가지 언어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중국어는 화제를 중시하는 언어에 영어는 주어를 중시하는 언어, 한국어나 일어는 화제와 주어를 모두 중시하는 언어, Tagalog와 Illocano는 화제와 주어를 모두 중시하지 않는 언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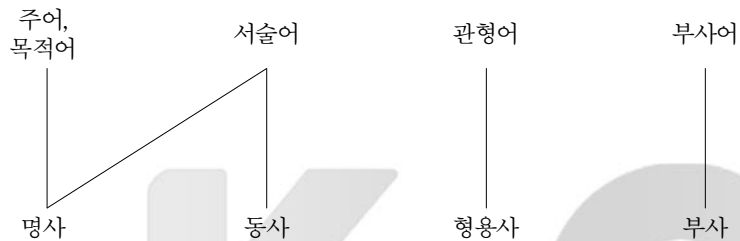
이런 여러 가지 유형론 중에서 중국어와 관련해서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중국어의 많은 통사현상과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는 고립어라는 형태적인 특징과 주술어문이나 화제화구문과 같은 독특한 구문과 관계된 화제를 중시하는 언어라는 특징이다.⁴⁾ 본문에서는 고립어라는 형태적인 특징

3) Norman, Jerry. 1988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김광진역, 《중국언어학총론, 東文選》1996, p27-32.

과 관련된 중국어의 일부 통사현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中國語의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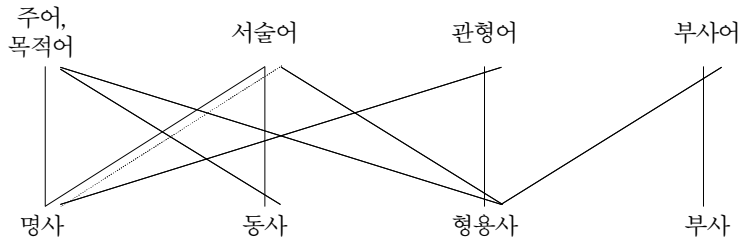
일찍이 많은 학자들이 중국어에 형태변화가 없다는 특징에 대해 주목해 왔다. 朱德熙(1985, p4-9)는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 중국어에서는 품사와 문장성분간에 간단한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2) 중국어에서는 문장의 구조원리와 구의 구조원리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 두 가지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특징의 경우 서구 언어에서는 품사와 문장성분간에 간단한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진다. 즉 일반적으로 동사는 서술어에 대응하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응하며 형용사는 관형어에 대응하고 부사는 부사어에 대응한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도 관형어로 쓰이며 형용사도 서술어나 부사어로 쓰이고 심지어 명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품사와 문장성분간의 관계가 상당히 복

4) 최봉량(2004)에서는 중국어에는 Li & Thompsom(1976)이 제시한 화제를 중시하는 언어의 특징 중 이중주어현상이 존재하고, 화제성분제약이 없으며, '화제-설명'구조가 문장의 기본 구조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중국어와 한국어는 언어유형론의 각도에서 공통점이 별로 없지만 주술술어문, 화제화구문과 같은 화제를 중시하는 언어의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잡하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중에서도 특히 동사와 형용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고 명사가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어의 경우 동사나 형용사는 형태론적인 혹은 문법적인 수단을 통해 명사적인 성분으로 전환된 후에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동사의 경우 정형동사(finite verb)는 서술어로만 쓰이고 동사를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전환시켜야 한다. 반면 중국어의 동사나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이든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든 모두 하나의 형태로 형태의 변화가 전혀 없다. 명사가 관형어로 쓰이는 문제에 있어서 서구 언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주로 형용사이며 어떤 언어에서는 관형어는 모두 형용사로만 충당되기도 한다. 명사는 형용사화 접미사가 붙어 형용사로 바뀐 후 관형어로 쓰이곤 한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든 관형어로 쓰이든 모두 하나의 형태로 형태의 변화가 전혀 없다.

두 번째 특징의 경우 영어에서는 문장(sentence)의 서술어 부분은 반드시 정형동사가 주요 동사로 쓰여야 하며 구(phrase)에 동사가 있다면 비정형 형태나 분사형태이지 정형동사가 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문장과 절의 구조와 구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 (1) He flies a plane.(他開飛機)
- (2) To fly a plane is easy.(開飛機容易)

(3) Flying a plane is easy.(開飛機容易)

예문에서 보듯이 (1)에서 'fly'라는 동사는 정형형태를 띠고 있지만 (2)와 (3)에서 주어의 위치에서는 비정형 형태와 분사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예문에서 동사나 동사구가 어느 위치에 나타나든 그 형태가 같다. 중국어 문장의 구조와 구의 구조가 같다는 것은 주술구조에 잘 나타나는데 중국어의 주술구조는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영어의 문장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을 때는 영어의 절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4) 他開飛機

(5) 我知道他開飛機

예(4)는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지만 예(5)에서는 이 문장이 아무런 변화 없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주덕희는 더 나아가서 품사와 문장성분간에 간단한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문장의 구조원리와 구의 구조원리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은 중국어 품사에는 형태표지가 없다는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을 위한 문법교재라고 할 수 있는 《對外漢語教學實用語法》(盧福波, 1996)도 중국어 문법의 특징으로 1) 형태변화가 발달하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과 2) 어순과 허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특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형태변화는 문법구조 내에서 각 성분간의 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형태변화가 많지 않은 중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분들 간의 출현 순서(어순)와 이들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일부 단어(허사, 특히 개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은 형태변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특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형태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III. 名詞와 관련된 形容詞意味

1. 中國語 名詞의 形容詞的 用法

중국어의 형태변화가 없다는 특징은 많은 문법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는 명사가 아무런 형태변화 없이 형용사처럼 쓰이는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전형적인 명사가 형용사처럼 서술어로 쓰이거나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朱德熙(1982)에 따르면 명사의 통사적인 특징은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 형용사의 통사적인 특징은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며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전형적인 명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또 동시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6) 有些喇嘛比同齡的我們大學生還現代。
- (7) 這種技術非常環保。
- (8) 那是不可能的，你太理想主義了。
- (9) 從社會主義大家庭的整體利益出發，中國是十分够“哥們”的，在幾十年戰爭創傷不及恢復、國家十分疲憊的、武器裝備極其落后以及自己國家尚未實現最后統一的情況下，“爲朋友兩肋插刀”。

(6)에서 ‘現代’는 전형적인 명사이고, (7)에서 ‘環保’는 ‘環境保護’의 축약형으로 본래 명사로 보이며, (8)의 ‘理想主義’나 (9)의 ‘哥們’의 경우 전형적인 명사라는데 더욱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哥們’의 경우 저자가 자신이 본래 명사인 단어를 형용사 같이 사용했다는 점을 “”로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이런 용법은 방송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살아있는 표현들이다. 물론 이런 용법은 임시적인, 혹은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임시적이든 혹은 수사적이든 일단 중국어 모국어 화자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명사의 이런 용법에 대해 邢福義(1997)는 명사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很+名詞’이라는 중국어 명사의 특수한 용법에 관한 문장을 쓴 적이 있다. 예를 들면,

- (10) 愜細很淑女地啜飲高脚杯中的白酒。
 (11) 這種事你最內行，應付英國人你最本事。

이런 구조에 쓰이는 정도부사에는 ‘很’외에도 ‘最, 大, 更, 够, 真, 非常, 特別, 比較’ 등이 있으며 이런 부사 뒤에 쓰이는 성분은 ‘很淑女, 最本事, 太公式’처럼 하나의 명사일 수도 있고 ‘很紳士風度, 更詩情畫意’처럼 구일 수도 있다. 그는 이런 용법은 주로 홍콩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나 최근 대륙 작가들도 사용 빈도가 늘어가고 있으며 사실 이런 용법은 현대 중국어에 원래 있던 것으로 ‘茅盾’이나 ‘曲波’등의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很+名詞’의 틀에 들어 갈 수 있는 명사는 비교적 다양하지만 의미적인 제약이 있는데 즉 이런 명사들은 ‘氣質, 作風, 樣式, 氣味, 勢態’등의 각도에서 특별한 느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과 이런 사람의 개체의 속성에 관한 특별한 느낌이 바로 ‘很淑女’와 같은 표현이 생겨난 문화적인 배경이다. 또 전형적인 명사가 ‘很+X’라는 틀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명사가 형용사로 借用된 것으로 품사의 차용 현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 들어간 명사가 자주 사용되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되고 임시적인 특별한 느낌이 고정된 의미특징으로 발전하여 품사 분열이 나타나 기존 명사라는 품사 외에 형용사 용법이 생겨난다. 품사의 차용에서 품사 분열은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이 발전 과정 중간에는 모호한 상태가 존재하기도 한다.

譚景春(1998)도 중국어 일부 명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품사전환은 보편적인 언어현상으로 복잡한 문제인데 특히 중국어에는 엄격한 의미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품사 전환 시 형태변화를 수반하지 않아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고 말한다. 품사의 전환은 하나의 과정으로 겸류(兼類)와 활용(活用)을 포함하는데 겸류는 품사 전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활용은 품사전환의 진행과정 혹은 임시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겸류와 활용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활용에서 겸류까지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며 과도기에 있어 이 둘 간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우선 단어의 의미를 개념의미와 성질의미의 두 가지로 나누고 명사가 내포하고 있는 성질의미가 명사가 형용사로 전환되는 의미적인 기초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A	B
一斤油	這個人太油
堅持原則	這個問題非常原則，我們不能退讓

A의 ‘油’와 ‘原則’은 명사이고 명사는 원래 사물을 나타낸다. B의 ‘油’와 ‘原則’은 형용사로 성질을 나타낸다. B의 성질의미는 A의 명사가 내포하고 있는 성질의미에서 발전되어 나와서 형성된 것이다. 중국어에는 형용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A	B
衣衫破爛不堪	一堆破爛兒
這情況太意外了	以免發生意外

A의 ‘破爛’과 ‘意外’는 형용사이고 B에서는 명사인데 이들 명사는 A에서 전환된 것이다. 형용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것은 지시작용을 통해 의미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어떤 성질(형용사)로 그런 성질을 가진

사물(명사)을 지칭하는 것이다.

명사가 아무런 형태변화 없이 형용사처럼 쓰이는 이런 현상은 사전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용법으로 위의 두 학자가 밝히듯이 명사의 ‘借用’ 혹은 ‘活用’현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이에게 색다른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용법은 말하는 이가 특정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예 (9)처럼 “ ”를 사용한다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용법이 초기에는 借用 혹은 活用현상에 속하고 이런 용법이 나타내는 색다른 느낌 때문에 사용했을 수 있으나 이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고 사용이 빈번해지면 용법이 굳어져 품사가 분화되고 최종적으로 사전에 등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은 중국어의 일부 명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예를 든 것이고 이외에도 ‘有’가 동사목적어를 취하는 용법은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⁵⁾ 朱德熙(1985)는 ‘有’의 목적어 위치에 있는 일부 동사는 명사의 성질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⁶⁾ 이는 중국어는 아무런 문법적인 조작을 거치지 않고 동사가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명사를 형용사 같이 사용하던 동사를 명사 같이 사용하던 모두 형태상의 변화가 없으며 이는 ‘형태가 없다’라는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에서 유래하며 이 문제는 향후 중국어 실사의 다기능현상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5) 박기현(2004)에서는 중국어 동사 ‘有’가 동사적인 성분을 목적어로 취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有’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동사성분은 그 범위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혔던 것보다 더 넓으며 또한 각자의 성격도 완전히 같지 않지만 이들은 모두 어느 정도 명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6) 朱德熙(1985)는 어휘적인 의미가 거의 없는 虛化動詞는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음절 명사나 동사만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으며 동사의 경우 다른 동사와는 다르게 명사적인 성격을 띠고 했는데 그 명사적인 성격은 직접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것(調查小組/斗爭方式)과 직접 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農村調查/階級斗爭), 명사만을 수식하는 수량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有些準備/受很多限制), 동사 有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有研究/有保障)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다.

것이다.

2. 韓國語와 英語 名詞의 形容詞化

그럼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나 영어의 상황은 어떠한가?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형태변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어나 영어는 모두 ‘屈折’이 있고 중국어는 없다. 사실 한국어와 영어에도 일부 명사가 ‘氣質’, ‘作風’, ‘樣式’, ‘氣味’, ‘勢態’ 등 각도에서 화자의 특별한 느낌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명사가 내포하고 있는 성질의미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단지 특정한 문화적 소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특정한 사물속성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 ‘很淑女’와 같은 표현을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배경이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가 화자의 특별한 느낌을 반영하는가는 개별 언어의 특징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는 명사를 그대로 형용사가 주로 나타나는 문법적인 위치에 놓을 수 없다. 혹은 명사를 직접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가 한국어나 영어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형태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화자가 특정 명사가 반영하는 특별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한 문법적인 수단을 통해 우선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어에서 화자가 명사가 반영하는 특별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면 우선 명사를 형용사로 전환시키는 문법적인 조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淑女’는 명사이며 만약 ‘很淑女’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싶다면 명사 뒤에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답다’를 첨가해야 한다. ‘동아새국어사전(1994)’에서는 ‘-롭다’에 대해 “접미사로 일부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이 접미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표현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예를 들면,

- (12) 하지만 각종 안전장치는 렉서스답다.
- (13) 그의 선정기준은 과연 피부과 전문의답다.

(12)의 ‘렉서스’는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의 브랜드명인데 이 브랜드명에 ‘-답다’가 붙어 ‘렉서스’라는 차의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13)의 ‘전문의답다’라는 표현도 ‘전문의’라는 체언의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한국어에서 ‘-답다’외에 명사에서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 ‘-스럽다’, ‘-롭다’ 등이 있다. ‘-스럽다’의 사전 뜻풀이는 “접미사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느낌이 있다’는 뜻의 형용사를 만든다”이다. 예를 들면,

- (14) 한때 오노스럽다라는 말이 있었죠. 더 심한 욕이 있다면 국회의원스럽다입니다.
- (15)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를 듣고 부르며 다듬은 창법은 스스로 듣기에도 ‘R&B스럽다’다고 한다.

(14)의 ‘오노’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미터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 김동성을 실격시키고 금메달을 차지해 한국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던 미국선수 ‘안톤 오노’를 말한다. ‘오노’라는 사람에 대해 충분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노스럽다’는 표현을 ‘오노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으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스럽다’나 ‘R&B스럽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롭다’의 사전 뜻풀이는 “접미사로 일부 명사나 관형사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만한’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든다 ‘이며’, ‘향기롭다’, ‘슬기롭다’ 등의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롭다’의 경우 ‘氣質’, ‘作風’, ‘樣式’, ‘氣味’, ‘勢態’ 등의 각도에서 화자의 특별한 느낌을 반영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명사의 의미와 관련된 형용사를 파생키는 점은 같다. 상술한 조어법뿐 아니라 통사적인 방법으로 ‘氣質’, ‘作風’, ‘樣式’, ‘氣味’, ‘勢態’ 등의 각도에서 화자의 특

별한 느낌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에서 ‘中國’은 명사이며 ‘很中國’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싶다면 우선 ‘中國’뒤에 정도를 나타내는 접미사 ‘적(的)’을 첨가하는 문법적인 조작이 필요하며 이때 서술어는 ‘-이다’만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명사+접미사+계사(copula)’의 구조인 ‘중국적이다’로 중국어의 ‘很中國’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명사에 접미사를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아예 통사적인 방법으로만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영어에도 명사에서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ous’와 같은 생산적인 접미사가 있다. 이 접미사에 대한 ‘牛津高階英漢雙解詞典(1997)’의 영어 뜻풀이는 ‘having the qualities or character of’이고 중국어 뜻풀이는 ‘具有…性質或特征的’이다. 이 접미사가 명사에 붙어 파생시키는 형용사로는 ‘poisonous’, ‘mountainous’, ‘glorious’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접미사로는 ‘-ous’외에도 ‘-ful(充滿…的, 有…性質的, 有…傾向的)’, ‘-ly(具有某性質的)’, ‘-like(象…的, 類似…的, …般的, …樣的)’, ‘-ish(…性的, …一樣的, 象…似的)’ 등이 있다. 명사에 ‘-ful’이 붙어 파생되는 형용사로는 ‘beautiful’, ‘masterful’ 등이 있으며, 명사에 ‘-ly’가 붙어 파생되는 형용사로는 ‘cowardly’, ‘scholarly’ 등이 있으며, 명사에 ‘-like’가 붙어 파생되는 형용사에는 ‘childlike’, ‘shelllike’ 등이 있으며, 명사에 ‘-ish’가 붙어 파생되는 형용사로는 ‘bookish’, ‘childish’ 등이 있다. 즉 영어에서는 대개 접미사라는 문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명사를 형용사화한 후에만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비로소 서술어로 쓰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IV. 結論

기능적으로 언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고 언어소통의 배경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양한 만큼 수시

로 새로운 언어표현이 필요하게 된다. 새말의 창조는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명명의 필요성에서 비롯되는데 이때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이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를 전혀 새로운 형태에 담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기존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기존 형태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다.(임지룡 1997, p251/252) 따라서 중국어에서 명사를 이용해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나 영어에도 기존의 명사를 이용해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문제는 명사를 이용해 형용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즉 중국어에서는 명사가 아무런 외형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형용사처럼 쓰이는데 반해 똑같이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한국어나 영어는 대체로 외형상의 변화를 통해 단어의 성격을 명확하게 바꾸고 난 후에야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 이는 중국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라는 특징과 관계가 있다. Comrie(1981)가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는 비록 형태론적으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언어이지만 '屈折'의 유무 각도에서 보면 공통점을 가지고 이 점에서 중국어와 대립한다. 바로 이런 대립이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된 필요에서 출발하지만 상이한 통사현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만들어 낸다.

중국어의 형태변화가 없다는 특징은 중국어 문법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본문에서 살펴본 중국어 명사가 그대로 형용사처럼 쓰이는 현상은 중국어의 품사분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중국어 문법에서 품사분류문제는 오랜 난제였고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데 이는 결국 중국어의 형태적인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임지룡, 《인지의미론》(담출판사), 1997.
- 최봉량, <中國語와韓國語의 話題構造研究>, 《中國語文學》 43(嶺南中國語文學會), 2004. 6.
- 盧福波, 《對外漢語教學使用語法》(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6.
- 朴起賢, <現代漢語動詞有'的'語義功能>, 《南開語言學刊》, 2004.
- 譚景春, <名形詞類轉變的語義基礎及相關問題>, 《中國語文》5, 1998.
- 譚景春, <關於由名詞轉變成的形容詞的釋義問題>, 《辭書研究》1, 2001.
- 刑福義, <“很淑女”之類的說法-語言文化背景的思考>, 《語言研究》2, 1997.
- 朱德熙, 《語法講義》(商務印書館), 1982.
- 朱德熙, 《語法答問》(商務印書館), 1985.
- 朱德熙, <現代書面漢語的虛化動詞和名動詞>, _____,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5, 1985.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沈家煊譯1989, 語言共性和語言類型, 華夏出版社)
- Li, C.N & Thompson, S.A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李谷城摘譯 1984, 主語與主題: 一種新的語言類型學, 國外語言學 2)

<中文提要>

世界上有數以千計的語言，而我們從不同的角度可以對這些語言進行分類。漢語從形態標準來看屬於孤立語，從主要句子成分的出現順序來看屬於SVO型語言，從親屬關係看屬於漢藏語系，從話題的重要性來看屬於注重話題的語言。其中對漢語語法影響最大的是它形態方面的特点。而本文所討論的是

与漢語的形態特点有關的一个語法現象，即典型的名詞在毫无形態上變化的情況下直接出現在通常形容詞才出現的位置上。對此，邢福義(1997)認為受副詞修飾用作定語、謂語、狀語或補語的名詞能够從氣質、作風、樣式、氣味、態勢等方面，反映出說話人的某种特异感受。典型名詞的這種用法是名詞的活用，屬於詞性活用現象。但一旦用多了，就習以為常，有可能出現詞性裂變現象，在原來名詞詞性的基礎上裂變出形容詞性。邢還表示具有特定文化素養的人，及其對物體屬性的特异感受是名詞活用為形容詞的文化背景。我們認為表達与名詞屬性有關的特异感受的需求不但漢語有，屬於不同類型的其他語言也有同樣的需求。所以漢語利用名詞來表達与這個名詞有關的形容詞義，這件事本身沒有獨特之處。漢語區別于其他語言的是利用名詞來表達形容詞義的具体過程。從有无“屈折”的角度看，韓語和英語都屬於有“屈折”的語言，所以要利用名詞來表達与這個名詞有關的形容詞義時，韓語和英語通過語法手段首先把名詞轉變成形容詞之后用在形容詞通常出現的位置上，但沒有“屈折”變化的漢語直接把名詞用在形容詞位置上。此外，漢語的這種特点還跟漢語實詞的划類問題、多功能現象有密切的關係。

주제어 : 언어유형, 고립어, 형태변화, 명사, 형용사

